

배포 일시	2022. 6. 16.(목)		
담당 부서 <총괄>	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	책임자	과 장 문유진 (02-2131-2020)
		담당자	사무관 송상민 (02-2131-2038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더 많은 국민을 모시고자,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연장합니다

- 6월 26일까지 7일간 시범개방 연장. 국민 편의를 위해 현장 등록도 가능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이번 용산공원 시범개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, 시범개방 기간을 6월 26일까지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.
 - * 시범개방 기간 중 09시 ~ 19시 간 운영 (마지막 입장은 17시)
6.19(일), 15시~19시는 행사장 정비 관계로 미운영 (13시 입장 마감)
 - 이번 시범개방 연장은 더 많은 국민이 용산공원을 미리 경험함으로써,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용산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이다.
 - 이미 장군숙소, 카페거리의 이국적 풍광과 대통령 경호장비 등 이색적 볼거리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시범개방이 연장되면서, 용산공원의 첫 걸음을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-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등록도 운영한다. 6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용산역 출입구(신용산역 1번출구, 한강로동 주민센터 인근)를 방문하면, 인터넷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원 이용이 가능하다.
 - 기존 예약시스템(네이버예약, '용산공원 시범개방' 검색)을 통한 접수도 함께 운영된다. 연장되는 기간(6.20~6.26)에 대한 예약은 6월 17일 14시에 게시되며,

전 일정을 선착순으로 예약하게 된다. 인터넷 예약 시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더욱 빠른 출입이 가능하다.

- 해설사와 함께하는 산책, 대통령 경호장비 관람, 카페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속된다. 시범 개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 누리집* 3곳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*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 누리집 바로가기(www.yongsanparkstory.kr, www.yongsanparkstory.com, www.yongsanparkstory.net)

< 시범개방 현장 사진 >

	
<p>장군숙소 산책</p>	<p>국민의 바람정원</p>
	
<p>카페거리</p>	<p>대형그늘막 휴식 공간</p>

〈 주요 예상 질문 〉

- 인터넷 예약을 하지 않았는데 방문이 가능한가요?
⇒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신용산역 출입구로 오시면 현장등록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. 참고로 대통령실 앞뜰 경호장비 전시 등 모든 프로그램을 관람하기 위하여는 출입자 전원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방문 예약 신청 시 최대 인원은 몇 명인가요?
⇒ 방문신청자를 포함하여 최대 6인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방문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같이 방문하셔야 합니다.
- 반려동물도 입장할 수 있나요?
⇒ 관람객의 편안한 이용을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은 제한됩니다.
- 사진 촬영은 모든 곳에서 가능한가요?
⇒ 자유롭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대통령실 앞뜰 경호장비 관람 시에는 사진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음식 반입이 가능한가요?
⇒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병 음료와 주류 이외에는 반입이 가능합니다. 식음은 지정된 구역(푸드트럭 인근)에서만 가능합니다.
- 시범개방 기간 이후에도 용산공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?
⇒ 시범개방 기간에만 방문이 가능합니다. 단, 시범개방 이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오픈 예정입니다.
- 인터넷 예약 시 대리예약이 가능한가요?
⇒ 용산공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므로, 대리예약은 불가능합니다. 이 경우, 대리예약보다 현장등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인터넷 예약 매진 시 대기신청이 가능한가요?

⇒ 대기예약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. 부득이 예약을 하지 못하신 경우 현장등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인터넷 예약 시 예약변경이 가능한가요?

⇒ 방문일, 신청자, 동반인원 등 신청정보 변경이 불가하며,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예약취소 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○ 2시간만 체류할 수 있나요?

⇒ 체류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다만, 종료시간(매일 19시)까지는 퇴장하셔야 합니다.

○ 오염물질이 인체위해도 기준을 초과했다는데 안전한가요?

⇒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는 매년 350일씩 25년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, 걱정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, 도로포장, 잔디식재 등을 통해 접촉을 차단하였습니다.